

■ 연구원 소식

○ 연구원과 전주일꾼쉼터 협약체결

: 사단법인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김병문 이사장의 대리인 홍성덕 부원장과 전주일꾼쉼터의 유두희 센터장이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구원은 대중인문학사업을 통하여 일꾼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경제사회적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전주일꾼쉼터는 본 연구원이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의 첫 성과물로 연구원 평의원인 이정욱 박사와 최우영 사무국장이 전주일꾼쉼터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오는 4월 24일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9시부터 두시간씩 인문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 자리한 단체건 연구원과 함께 하고자 하는 곳을 찾아 연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2015년 4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 2015년 4차 운영위원회의가 4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 한지산업관 202호에서 열렸습니다. 홍성덕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건우, 한명수, 이충규, 이미경, 최우영, 하태진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과 관련하여 이규수 교수(고려대학교)께서 배석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연구원 부설연구소(글로벌 휴머니티 소사이어티) 설립 승인 건이 있었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이규수 선생의 설립 제안 설명이 있었고, 이후 운영위원회 결과 부설 연구소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세부적 내용은 차기 운영위원회까지 이규수 교수와 연구원 사무국이 조정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할 연구원의 첫단추가 끼워진 만큼 내일을 향해 한걸음씩 차분하고 진중하게 내딛겠습니다.



○ 왕기석 이사 공연 안내

: 전주의 봄은 판소리의 향연과 함께 시작됩니다. 올해로 스물다섯번째를 맞이한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이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다섯명의 명창과 함께 그 문을 열고 봄의 심장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첫 번째 날 공연에 우리 연구원 이사인 왕기석 명창께서 "박초월제 수궁가"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잡고 봄을 향해 달려갈 예정입니다. 박초월제 수궁가는 남성이 소화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우리 왕기석 이사께서는 섬세한 감성표현과 뛰어난 사설 전달력으로 소리에 목마른 분들께 단비같은 시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봄, 심장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하고픈 회원께서는 4월 7일(화) 저녁 7시 30분부터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박초월제 수궁가"를 만나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금주 연구원 주간일정

[2015년]

- 04월 06일 : 주간회의 / 도서 DB기반 구축
- 04월 07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4월 08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4월 09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4월 10일 : 법인 월례 업무보고

■ 역사속의 오늘

○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1969. 04. 07

: “껍데기는 가라”는 일갈로 피를 먹고 만들어진 사월 세상의 검불들에게 죽비를 내리친 시인 신동엽. 20140416. 295. 9 / 탐욕과 거짓으로 상징되는 압축성장의 대한민국에 경을 친 숫자를 기억하자. 그가 남긴 또 하나의 사월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기억하자. 그 것이 겉과 속 다른 본새로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인 무리들에게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저항일 터. 무늬만 사람인 것들에게 온 힘 다 쥐어짜 저항할 것을 스러진 영혼들에게 아직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줘야함을 가르친 시인 신동엽. 그가 대한민국 정부의 흑역사인 국민방위군에 끌려갔다 1951년 돌아오는 길, 허기에 저 개울가에서 잡아먹은 게 때문에 걸린 디스토마가 간암으로 번져 1969년 4월 7일 마흔에 세상을 등졌다.

○ 목포의 눈물 합창을 뒤로하고 떠난 이난영 - 1965. 04. 11

: “내 고향은 남쪽 목포항입니다. 어디든지 그렇지만은 항구에서 자라난 처녀들은 노래를 무척 즐기지요. 나도 그랬습니다. 망망한 대양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외로운 바위위에 홀로 앉아서 석양이 어물어물 떨어지는 서쪽 하늘을 우러러 희망의 노래를 부른답니다.” (여가수 이난영 평전 - 오마이뉴스 2006. 3. 30) 식민지 조선에서 25만장의 레코드판이 팔려나갈 정도였던 공전의 히트곡. 단지 목포의 눈물이 아니라 인천이건 부산이건 원산이건 항구의 기억을 가진 모든 이들, 아니 조선의 눈물이었던 노래. 이 노래의 주인공 이난영이 파란의 삶을 뒤로하고 1965년 4월 11일 서러움도 남기지 못한 채 홀로 침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장례식 날 회현동 자택에서 세종문화회관 근처까지 시민들은 “목포의 눈물”을 함께 한 연예인들과 합창하며 그녀를 보내주었다.

◆ 지난 호 뉴스레터까지 연재된 역사속의 오늘이 이번호부터는 2~3쪽지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